박병호

또 터졌다

시즌 3호 홈런 등 첫 멀티안타…미네소타 7-4 강우 콜드승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이틀 만에 홈런포를 가동하며 시즌 3호 아치를 그렸다.

또 메이저리그 입성 후 첫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치며 시즌 타율을 2할대로 끌어올렸다.

박병호는 19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3-3으로 맞선 4회말 선두 타자로 등장해 상대 우완 선발 채이스 앤더슨의 시속 145㎞ 직구를 밀어쳐 오른쪽 담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터트렸다. 관중석 상단을 때리는 비거리 129m(423피트)짜리 큼지막한 홈런이었다.

밀어서도 담을 훌쩍 넘어가는 홈런을 칠 수 있다는 '거포 이미지'를 심은 의미 있는 홈런이었다.

박병호는 지난 17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 이후 2일 만에 홈런을 추가하며 메이저리그 정규시즌에서 세 번째 홈런을 기록했다.

첫 타석에서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 이날 6번 지명타자로 등장한 박병호는 2회초 무사 1루에서 시프트(변형 수비)에 걸려 병살타로 물러났다. 박병호는 일반적으로 안타가 될 수 있는 2루 베이스 근처로 타구를 보냈지만, 밀워키 야수진의 시프트에 길목이 막혔다.

하지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아예 공을 담장 밖으로 내보냈다. 홈런은 시프트로도 막을 수 없다.

홈런으로 기세를 올린 박병호는 다음 타석에서도 밀어치는 타법으로 시프트를 뚫었다. 박병호는 5회말 2사 1루에서 시속 145㎞ 직구를 공략해 우전 안타를 쳤다. 박병호가 '잡아당기는 타자'라고 판단해 2루와 3루 사이에 내야수를 몰아넣은 밀워키는 타구가 내야를 빠져나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박병호는 이 안타로 11번째 경기 만에 첫 멀티히트를 작성했다. 마침 이날 미네소타는 '박병호 발코니'를 운영했다. 박병호 발코니는 '박병호를 응원하는 팬'을 위해 마련한 응원 지정석이다.

현지 방송은 박병호 발코니에서 응원하는 팬들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박병호는 구단이 '박병호 마케팅'을 펼친 날, 홈런과 멀티히트로 화답했다.

7회초 미네소타가 7-4로 앞선 가운데 경기는 우천 중단됐고, 양 팀은 2시간 넘게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지만 계속된 비 예보에 심판진은 강우 콜드 게임을 선언했다.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로 활약한 박병호는 타율을 0.167에서 0.205로 끌어 올렸다. 9연패로 시즌을 시작했던 미네소타는 이날 승리로 4연승을 달렸다. /연합뉴스

▶미네소타 트윈스의 박병호가 18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 중 3-3으로 맞선 4회말 선두 타자로 나와 홈런을 터뜨린 뒤 베이스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호

곧 터진다

트리플A서 첫 실전
9회 교체 때까지
공·수·주 모두 소화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부상 이후 처음으로 실전 경기에 출전했다.

강정호는 1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빅토리 필드에서 벌어진 트리플A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와 톨레도 머드헨스전에 3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피츠버그 산하 구단 인디애나폴리스 소속으로 경기에 출전한 강정호는 3타수 무안타 1볼넷 삼진 2개를 기록했다.

앞서 마이너리그 연습경기에만 출전했던 강정호는 무릎을 다친 뒤 처음으로 실전 경기에 출전해 9회초 교체되기 전까지 공격과 수비, 주루까지 모두 소화했다.

강정호는 앞으로 트리플A 경기에 수차례 더 나가 실전감각을 되찾은 뒤 메이저리그에 복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우승 실패? 준우승 성공!"

전인지, LPGA 4경기 '톱 3'…"재활·투어 적응 성공" 자평

'덤보'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부상 복귀 후 2차례 대회에서 모두 준우승을 차지했다. 부상 전 치른 혼다 LPGA 타일랜드 준우승을 포함하면 3개 대회 연속 준우승이다.

준우승은 '우승을 놓친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전인지는 오히려 '커다란 성과'로 자평한다. 전인지 캠프는 전인지가 올해 치른 4차례 대회에서 3위 한번과 준우승 3번 등 한 번도 3위 밖으로 밀린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전인지는 "즐거웠다"고 말한다.

특히 부상으로 한 달을 쉰 뒤에도 대회마다 우승 경쟁을 벌인 것은 재활과 투어 적응 과정이 성공적이라는 뜻으로 풀이한다. 특유의 부드러운 템포 스윙과 경기 운영 능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언제든 우승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은 물론이다. 우승에 연연하는 경기는 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확고하다.

호주 동포 이민지(20)에 1타차 우승을 내준 롯데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8번홀 버디 퍼트를 할 때도 리더보드를 보지 않았다. 버디 퍼트를 놓치고 파로 경기를 마친 뒤에야 1타차 준우승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우승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라는 생각이다. 하필이면 준우승한 대회마다 한 뼘 더 잘한 선수가 한 명씩 나타났다.

ANA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는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완벽한 경기를 펼쳤고 롯데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는 이민지가 8언더파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맹타

를 휘둘렀다. 전인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는 개의치 않는다"고 늘 말해왔다.

시즌은 길고 남은 대회는 많다. 조급하게 굴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금도 전인지는 물리 치료를 계속 받는다. 드라이버도 아직은 전력을 다해 때리지 않는다. 당분간은 힘껏 때릴 계획이 없다. 전인지 캠프는 그러나 22일 개막하는 스윙잉 스커츠 클래식을 주목한다.

연초에 투어 일정을 짤 때부터 염두에 뒀던 대회다. 코스가 전인지의 입맛에 맞기 때문이다. 전인지는 실수한 샷을 가차없이 응징하는 변별력 높은 코스를 좋아한다. 유독 메이저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이유가 바로 메이저대회의 변별력 높은 코스 세팅 때문이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하와이에서 치른 롯데 챔피언십에서 전인지는 녹다운 샷 대신 시종 부드러운 스윙을 고수했다. 하와이에서는 녹다운 샷이 절대 유리하지만 녹다운 샷을 고집하다가는 이어지는 스윙잉 스커츠 클래식에서 본래 스윙으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고 내린 결정이다. 그만큼 스윙잉 스커츠 클래식에 대한 의욕이 크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서동욱 포수 글러브도 갖고 왔더라"

덕아웃 T 톡·톡

▲도루 저지왕이네

KIA는 19일 안방에서 삼성과의 경기를 치렀다. 야구 없는 월요일을 보내고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이날 선수단은 캐치볼에 이어 투수·야수들이 함께하는 PFP(Pitcher Fielding Practice) 수비 훈련까지 진행하면서 몸을 풀었다. 훈련 도중 백용환이 2루 베이스로 정확하고 빠른 송구를 선보이자 '캡틴' 이범호는 "도루 저지왕이네. 공격형에서 수비형이 된 것이냐"는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띄었다.

▲음악 부탁해요

KIA 훈련시간에는 늘 경기장에 음악이 흘러나온다. 코칭스태프의 요청에 따라서 신나는 음악이 주를 이룬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기분 좋게 훈련을 하라는 배려다.

그런데 19일 훈련 시간에는 경기장이 조용했다. PFP 훈련이 진행되면서 수비 코치의 상황 설정에 따라 선수들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파이팅 소리와 코치들의 지시 소리로 가득했던 훈련시간이 끝난 뒤 조계현 수석 코치의 "음악 부탁합니다"는 사인과 함께 이내 경기장에는 신나는 음악 소리가 울려퍼졌다.

▲오자마자 스타팅이네요

웃음을 감출 수 없었던 강한울이다. 팔꿈치 뼛조각 제거 수술 여파로 오키나와에 캠프에 가지 못했던 강한울은 2군에서 기다림을 시간을 보냈었다. 그리고 강한울은 19일 시즌 처음 엔트리에 등록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첫 등록날 2루수로 선발 출장까지 하게 됐다.

"오자마자 스타팅이다. 긴장된다"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한가득이었던 강한울이다. 이날 새로 등록된 4명의 야수 중 서동욱을 제외하고는 강한울, 나지완(지명타자), 신종길(우익수) 모두 선발 라인업에 포진했다.

▲포수 글러브도 가지고 있더라

친정으로 돌아온 서동욱이 19일 1군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오랜만에 돌아온 친정이지만 어색하지 않다던 서동욱. 경기장, 유니폼, 동료들이 달라졌지만 익숙한 선배들이 많다. 김기태 감독과도 LG 2군 감독 시절 함께 했었다.

김기태 감독은 경기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내외야도 다 되는 선수다. 포수 글러브도 가지고 있더라. (포수로 기용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이라고 웃으며 서동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스위치 히터인 서동욱은 내·외야는 물론 포수로도 뛴 경험이 있다. "1루수 글러브까지 오늘은 글러브 4개를 가지고 왔다"며 웃음을 보인 서동욱은 "LG 시절에도 같이 해봤고 감독님의 의중을 잘 알고 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집현전에서 허정무 한국축구프로연맹 부총재(가운데)가 K리그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병지(오른쪽), 김태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김병지·김태영 K리그 홍보대사 위촉

그라운드의 스타 김병지와 김태영이 K리그 홍보대사로 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집현전에서 위촉식을 열고 김병지와 김태영을 K리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병지는 통산 706경기에 나와 역대 출전 경기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리그의 전설이다. 24시즌 동안 울산(1992~2000), 포항(2001~2005), 서울(2006~2008), 경남(2009~2012), 전남(2013~2015)에서 활약한 그는 229경기를 실점 없이 막으면서 무실점 경기 역대 1위 기록도 가지고 있다. 2위인 최은성(현재 전북 GK코치)의 152경기보다 무실점 경기 수가 77경기가 더 많다.

김병지는 K리그 통산 3골을 기록하면서 '골 넣는 골키퍼'로도 이름을 날렸다.

금호고 출신의 김태영은 프로에 입단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전남 유니폼만 입고 뛴 '원 클럽 맨'이다.

빠른 스피드와 투지 넘치는 수비로 '아파치'라는 애칭으로 사랑을 받았던 그는 K리그 통산 250경기에 출전하여 5골 12도움을 기록했다. 2013년 5월 K리그 30주년을 맞아 선정한 'K리그 레전드 베스트 11' 수비수 부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허정무 부총재는 "K리그 역사상 최고의 스타 선수들이 홍보대사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주어 감사하다"며 "국민께 받은 큰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K리그 홍보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병지, 김태영는 K리그가 열리는 전국의 축구장 현장을 찾아 대외적으로 K리그를 홍보하게 되며, 연맹이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과 축구 꿈나무를 키우는 유소년 지원 활동에도 참여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